

21장.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의 선언

18-20장에서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였는데 21-23장에서는 유다의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그렇지만 그 서술이 시간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

21장: 시드기야 왕의 재위 말년 (587/6년) - 바벨론의 3차 침략과 멸망 직전

22:1-9. 요시아(640-609)의 죽음 (609년)

22:10-12. 살룸[여호아하스]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감 (609년)

22:13-23. 여호야김(609-598)이 바벨론 침략 전에 살해당함 (598년)

22:24-30. 여호야긴(598-597. 3개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감 (2차)

23:1-8. 참 목자

23:9-40. 거짓 예언자

왕들에 대한 부분은 멸망 당시의 시드기야로 시작하여 참목자에 관한 예언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의 문제를 다룬다. 단순한 연대기적인 서술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배경에서 참목자를 소망하게 하는 서술이다.

1. 시드기야의 질문과 멸망 예고 (21:1-7)

21장에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에 시드기야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간청한다. 아마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하여 구원을 받은 일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청을 하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파멸이 이미 결정된 것이고,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들을 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2.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21:8-10)

시드기야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는데(참조 신 30:15),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일상적으로는 외적을 물리치는 것이 생명의 길이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징계를 순하게 받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친다. 예레미야는 항복하라는 조언을 하였다고 반역죄로 고소를 당할 것이다(37:11-14; 38:1-6).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이다.

3. 다윗의 왕가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21:11-14)

1) 다윗의 왕가에 대한 심판 (21:11-12)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대신하여 공의를 시행하는 대신에 탈취와 억압을 일삼는 나라를 여호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심판하신다.

2) 산성에 대한 심판 예고 (21:13-14)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 곧 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들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셨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산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형학적인 안전함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다.

21장 익힘 문제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 2절)

1) 어느 왕 때의 이야기입니까?

2) 그는 누구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까?

- 3) 어떤 부탁을 하였습니까?
2. 여호와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 포위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 9절)
3.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3-15절)
4. 예루살렘 산성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칠 것입니까? (13절)